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장인님! 인제 저…….”

내가 이렇게 뒤통수를 긁고, 나이가 찼으니 성례를 시켜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면 대답이 늘,

“이 자식아! 성례구 뭐구 미쳐 자라야지!”하고 만다.

이 자라야 한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아내가 될 점순이의 키 말이다.

내가 여기에 와서 돈 한 푼 안 받고 일하기를 삼 년 하고 꼬바기 일곱 달 동안을 했다. 그런데도 미쳐 못 자랐 다니까 이 키는 언제야 자라는 겐지 ㉠ 짜장 영문 모른다. 일을 좀 더 잘해야 한다든지, 혹은 밥을 많이 먹는다고 노상 걱정이니까 좀 덜 먹어야 한다든지 하면 나도 얼마든지 할 말이 많다. 하지만 점순이가 아직 어리니까 더 자라야 한다는 여기에는 어찌 볼 수 없이 고만 빙빙하고 만다.

이래서 나는 애초 ㉡ 계약이 잘못된 걸 알았다. 이태면

[A] 이태, 삼 년이면 삼 년, 기한을 딱 작정하고 일을 해야 원 할 것이다. 덮어놓고 딸이 자라는 대로 성례를 시켜 주마, 했으니 누가 늘 지키고 섰는 것도 아니고, 그 키가 언제 자라는지 알 수 있는가. 그리고 난 사람의 키가 무럭무럭 자라는 줄만 알았지 불배기 키에 모로만 벌여지는 몸도 있는 것을 누가 알았으랴. 때가 되면 장인님이 어련하랴 싶어서 군소리 없이 꾸벅꾸벅 일만 해왔다. 그럼 말이다. 장인님이 제가 다 알아채서, “어참, 너 일 많이 했다. 고만 장가 들어라.” 하고 살림도 내주고 해야 나도 좋을 것이 아니냐. 시치미를 딱 떼고 도리어 그런 소리가 나올까 봐서 지레 펄펄 뛰고 이 야단이다.

명색이 좋아 데릴사위지 일하기에 싱겁기도 할뿐더러 이견 참 아무것도 아니다.

㉢ 숙맥이 그걸 모르고 점순이의 키 자라기만 까맣게 기다리지 않았다.

언젠가는 하도 갑갑해서 자를 가지고 덩벼들어서 그 키를 한번 재볼까 했다. 마는 우리는 장인님이 내외를 해야 한다고 해서 마주 서 이야기도 한마디 하는 법 없다. 우물길에서 언제나 마주칠 적이면 겨우 눈어림으로 재보고 하는 것인데 그럴 적마다 나는 저만침 가서 ‘제에미 키두!’하고 눈독에다 침을 뱉는다. 아무리 잘 봐야 내 겨드랑(다른 사람보다 좀 크긴 하지만) 밑에서 넘을라 말라 밤낮 요 모양이다.

개 돼지는 폭폭 크는데 왜 이리도 사람은 안 크는지, 한동안 머리가 아프도록 궁리도 해보았다. 아하, 물동이를 자꾸 이니까 뺨다귀가 움츠르드나보다, 하고 내가 넋쫓넋스시 그 물을 대신

길어도 주었다. 뿐만 아니라 나무를 하러 가면 서낭당에 돌을 올려 놓고 ‘점순이의 키 좀 크게 해줍소사. 그러면 담엔 떡 갖다 놓고 ㉣ 치성도 한두 번 드린 것이 아니다. 어떻게 되먹은 낀지 이래도 막무가내니…….

그래 내 어저께 싸운 것이지 결코 장인님이 밍다든가 해서가 아니다.

모를 붓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또 싱겁다. 이 벼가 자라서 점순이가 먹고 좀 크다면 모르지만 그렇지도 못한 걸 내 심어서 뿔하는 거냐. 해마다 앞으로 축 불거지는 장인님의 아랫배(가 너무 먹는 걸 모르고 ㉤ 냇병이라나, 그 배)를 불리기 위하여 심곤 조금도 싶지 않다.

“아이구 배야!”

난 물 붓다 말고 배를 쓰다듬으면서도 그대루 눈독으로 기어 올랐다. 그리고 겨드랑에 쫓던 벼 담긴 키를 그냥 땅바닥에 털썩 떨어치며 나도 털썩 주저앉았다. 일이 암만 바빠도 나 배 아프면 고만이니까. 아픈 사람이 누가 일을 하느냐. 파릇파릇 돌아오른 풀 한숱을 뜯어 들고 다리의 거머리를 쭉쭉 문대며 장인님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B] 논 가운데서 장인님도 이상한 눈을 해가지고 한참 날 노려보더니,

“넌 이자식, 왜 또 이래 응?”

“배가 좀 아파서유!”하고 풀 위에 슬며시 쓰러지니까 장인님은 약이 올랐다. 저도 논에서 철병철병 독으로 올라오더니 잡은참 내 먹살을 움켜잡고 뺨을 치는 것이 아닌가……

“이자식아. 일 허다 말면 누굴 망해놀 속셈이냐. 이 대가릴 까놀자식?”

우리 장인님은 약이 오르면 이렇게 손버릇이 아주 못됐다. 또 사위에게 이자식 저자식 하는 이놈의 장인님은 어디 있느냐. 오죽해야 우리 동리에서 누굴 물론하고 그에게 욕을 안 먹는 사람은 명이 짜르다 한다. 조그만 아이들까지도 그를 돌아세놓고 욕필이(본 이름이 봉필이니까) 욕필이, 하고 손가락질을 할 만치 두루 인심을 잃었다. 허나 인심을 정말 잃었다면 욕보다 음의 배참봉택 마름으로 더 잃었다. 번히 마름이란 욕 잘하고, 사람 잘 치고, 그리고 생김생기길 호박개갈애야 쓰는 거지만 장인님은 외양이 톱 됐다. 장인에게 닭마리나 좀 보내지 않는다든가 애벌논 때 품을 좀 안 준다든가 하면 그해 가을에는 영락없이 땅이 푹푹 떨어진다. 그러면 미리부터 돈도 먹고 술도 먹이고 안달재신으로 돌아치던 놈이 그 땅을 슬쩍 돌려 안는다. 이바람에 장인님집 외양간에는 눈깔 커다란 황소 한놈이 절로 엉금

영금 기어 들고, 동리 사람들은 그 욕을 다 먹어가면서
도 그래도 굶실굶실 하는 게 아닌가……

그러나 내겐 장인님이 감히 큰소리할 ㉔ 계제가 못된다.

뒷생각은 못하고 뺨 한 개를 딱 때려놓고는 장인님은 무색해서 덤덤히 쓴 침만 삼킨다. 난 그속을 펴 잘 안다.

조금 있으면 갈도 꺾어야 하고 모도 내야 하고, 한참 바쁜 때인데 나 일 안하고 우리집으로 그냥 가면 고만이니까.

작년 이맘때도 트집을 좀 하나까 늦잠잔다구 돌맹이를 집어 던져서 자는 놈의 발목을 빼게 해놨다. 사날씩이나 ㉕ 건승 꿈, 앓았더니 종당에는 거반 울상이 되지 않았는가……

“예, 그만 일어나 일 좀 해라. 그래야 올 갈에 벼 잘되면 너 장가 들지 않니.”

그래 귀가 번쩍 띄어서 그날로 일어나서 남이 이틀 품들일 돈을 혼자 삶아 놓으니까 장인님도 눈썹이 커다랗게 놀랐다. 그럼 정말로 가을에 와서 혼인을 시켜 줘야 온 ㉖ 경우가 옳지 않겠나, 벼섬을 척척 들여쥘아도 다른 소리는 없고 물동이를 이고 들어오는 점순이를 담배통으로 가리키며, “이 자식아, 미쳐 커야지 조걸 무슨 혼인을 한다구 그러니 원!”하고 남 낮짝만 붉혀 주고 고만이다.

골김에 그저 이놈의 장인님, 하고 댕돌에다 메꾼코 우리 고향으로 내뺨까 하다가 꺾꺾 참고 말았다.

참말이지 난 이꼴하고는 집으로 차마 못 간다. 장가를 들러 갔다가 오죽 못났어야 그대로 쫓겨왔느냐고 손가락질을 받을 테니까…….

논둑에서 벌떡 일어나 한풀 죽은 장인님 앞으로 다가서며,

“난 갈 테야유. 그동안 사경 쳐내슈.”

“너 사위로 왔지 어디 머슴살러 왔니?”

“그러면 얼쩡 성례를 해줘야 안하지유. 밤낮 부려만 먹구 해준다, 해준다…….”

“글쎄, 내가 안하는 거냐, 그년이 안 크니까.”하고 어름어름 담배만 담으면서 늘 하는 소리를 또 늘어놓는다.

이렇게 따져나가면 언제든지 늘 나만 밀치고 만다. 이번엔 안 된다, 하고 대뜸 구장님한테로 판단 가자고 소맷자락을 내끌었다.

“아, 이자식이 왜 이래 어른을.”

안 간다구 뺨디디구 이렇게 호령은 제맘대로 하지만 장인님 제가 내 기운은 못 당한다. 막 부려먹고 딸은 안 주고, 게다가 땅땅 치는 건 다 뭐야…….

그러나 내 사실 참 장인님이 미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 전 날, 왜 내가 새고 개 맞은 봉우리 화전발을 혼자 갖고 있지 않았느냐. 발가생이로 돌 적마다 야릇한 꽃내가 물컹물컹 코를 찌르고 머리 위에서 벌들은 가끔 봉, 봉, 소리를 친다. 바위 틈에서 샘물 소리밖에 안 들리는 산골짜기니까 맑은 하늘의 봄별은 이불 속같이 따스하고 꼭 꿈꾸는 것 같다. 나는 몸이 나른하고 몸

살(병을 아직 모르지만)이 날려구 그러는지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이랬다.

“어러이! 말이! 맘 마 마…….”

이렇게 노래를 하며 소를 부리면 어느때 같으면 어깨가 으쓱 으쓱한다. 웬일인지 발을 반도 갈지 않아서 온몸이 맥이 풀리고 대구 짜증만 난다. 공연히 소만 들입다 두들기며……

“안야! 안야! 이 망할 자식의 소(장인님의 소니까) 대리를 꺾어들라.”

그러나 내 속은 정말 안야 때문이 아니라 점심을 이고 온 점순이의 키를 보고 울화가 났던 것이다.

점순이는 뭐 그리 썩 예쁜 계집애는 못된다. 그렇다구 또 개떡이나 하면 그런 것도 아니고, 꼭 내 아내가 돼야 할 만치 그저 ㉗ 툭툭하게 생긴 얼굴이다. 나보다 십년이 아래니까 올해 열여섯인데 몸은 남보다 두 살이나 덜 자랐다. 남은 잘도 흰칠히 들 크건만 이견 위아래가 몽툭한 것이 내 눈에는 혈없이 감참 외 같다. 참외 중에는 감참외가 제일 맛 좋고 예쁘니까 말이다. 둥글고 커다란 눈은 서글서글하니 좋고 좀 지쳐 찢어졌지만 입은 밥술이나 톡톡히 먹음직하니 좋다. 아따, 밥만 많이 먹게 되면 팔자는 고만 아니냐. 현대 한 가지 과가 있다면 가끔가다 몸이(장인님이 이걸 채신이 없이 들까분다고 하지만)너무 빨리빨리 논다. 그래서 밥을 나르다가 때없이 풀밭에서 ㉘ 깨박을 쳐서 흙투성이 밥을 곧잘 먹인다. 안 먹으면 무안해 할까봐서 이걸 찌고 앓았느라면 으적으적 소리만 나고 돌을 먹는 겐지 밥을 먹는 겐지…….

01

화자의 태도 및 어조 파악 · 객관식

윗글의 화자인 '나'의 서술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의 처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비극적 결말을 예견하려 한다.
- ② 상대의 기만적인 행위를 냉철하게 비판하며 논리적으로 대응하려 한다.
- ③ 상황의 모순을 순박한 시선으로 서술하며 해학적 분위기를 형성하려 한다.
- ④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며 현재의 고통을 숙명적으로 수용하려 한다.
- ⑤ 타인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며 화해를 도모하려 한다.

02

인물의 성격 및 사회적 지위 · 객관식

윗글의 '장인'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마을 사람들에게 인심을 잃었으나 마름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권력을 행사한다.
- ② 사위인 '나'를 가족으로 대우하기보다 노동력을 착취하는 대상으로 간주한다.
- ③ 자신의 이익을 위해 관습적인 혼례 절차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성례를 미룬다.
- ④ 상대의 약점을 파악하여 심리적으로 압박함으로써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킨다.
- ⑤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타인에게 적용하려 한다.

03

사건의 인과관계 분석 · 객관식

윗글에서 '나'가 논독으로 기어올라가 주저앉은 근본적인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날 무리하게 화전밥을 갈았던 탓에 실제로 복통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 ② 장인이 점순이의 키를 핑계로 성례를 미루는 것에 대한 무언의 저항이다.
- ③ 점순이가 가져온 밥에 돌이 섞여 있어 장인에 대한 적개심이 폭발했기 때문이다.
- ④ 마을 사람들에게 못난 사위라고 손가락질받는 처지에 대한 자괴감 때문이다.
- ⑤ 벼가 자라도 점순이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물학적 깨달음 때문이다.

04

내용의 세부 조건 파악 · 객관식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장인과 계약할 때 구체적인 기한을 정하지 않고 점순이의 성장을 조건으로 삼았다.
- ② 장인은 '나'가 일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갈 경우 농사일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 ③ 마을 사람들은 장인의 성격이 못됐음을 알면서도 그의 마름이라는 지위 때문에 굴종한다.
- ④ '나'는 점순이의 키가 자라지 않는 이유가 물동이를 자주 이기 때문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 ⑤ 점순이는 장인이 '나'를 때리는 것을 보고 장인에게 대들며 '나'의 편을 들어주고 있다.

05

정보의 통합적 이해 · 객관식

[A]와 [B]를 통해 알 수 있는 '장인'의 처세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명분을 중시하는 척하면서 실리적으로는 타인의 노동력을 무상으로 점유한다.
- ② 가족 공동체의 결속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가부장적 권위를 내세운다.
- ③ 마을의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자로서 자신의 도덕적 결함을 은폐하려 노력한다.
- ④ 외부 권력의 압력에 저항하며 마을 사람들의 경제적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⑤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계약 관계를 구축하여 장기적인 협력 체계를 유지하려 한다.

06

인과관계의 제한 조건 파악 · 객관식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나'가 장인에게 대들면서도 결국 '밀지고 마는' 근본적인 제약 조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장인이 마을의 마름이기에 그에게 대항하면 부모님의 소작권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 ② 점순이가 장인의 딸이므로 장인을 공격하는 것이 유교적 효의 가치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 ③ 성례의 조건이 '점순이의 키'라는 주관적이고 가변적인 기준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 ④ 구장님을 비롯한 마을 어른들이 모두 장인의 편을 들어줄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 ⑤ '나'가 장인보다 신체적으로 약하여 물리적 충돌에서 승산이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07

공간적 배경과 심리의 통합 · 객관식

윗글의 '화전밥' 장면에서 드러나는 '나'의 심리 상태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봄날의 따스한 풍경과 대비되어 '나'의 내면적 울화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 ② 신체적인 나른함과 가슴의 울렁거림은 성례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교차함을 보여준다.
- ③ 소에게 화풀이하는 행동은 장인에게 직접 표출하지 못한 분노의 전이로 볼 수 있다.
- ④ 자연의 아름다움에 몰입함으로써 장인과의 갈등을 일시적으로 망각하고 치유받고 있다.
- ⑤ 점순이의 외모를 감참외에 비유하는 것은 그녀에 대한 애정과 원망이 섞인 복합적 심리이다.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소설은 '데릴사위제'라는 관습을 소재로 삼고 있다. 전통적인 데릴사위제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신 혼례 비용을 면제받는 상부상조의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농촌의 궁핍화 과정에서 이러한 관습은 마름과 같은 지배 계층에 의해 노동력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기도 했다. 작가는 이러한 비극적 현실을 직접적으로 고발하기보다는, 어수룩한 화자의 시선과 골계미(滑稽美)를 통해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특히 인물 간의 위계 관계가 뒤집히거나 상식 밖의 논리가 통용되는 상황을 통해 웃음을 유발한다.

- ① '나'가 사경도 받지 못하고 3년 넘게 일하는 것은 관습이 착취의 수단으로 변질된 단면을 보여주겠군.
- ② 장인이 '나'의 기운을 당해내지 못하면서도 호령을 치는 모습은 인물 간의 위계가 불안정함을 드러내겠군.
- ③ 점순이의 키를 성례의 절대적 기준으로 내세우는 장인의 논리는 상식 밖의 희극적 상황을 연출하겠군.
- ④ 마을 사람들이 장인에게 굽실거리는 행위는 데릴사위제의 상부상조 정신이 공동체 전체로 확산된 결과겠군.
- ⑤ '나'가 장인을 '욕필이'라고 부르는 아이들의 행동을 언급하는 것은 장인의 권위에 대한 우회적 조롱이겠군.

윗글의 내용으로 보아, '나'가 장인에게 대들었다가도 금세 '한 풀 죽는'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장인이 실제로 자신의 발목을 빼게 했던 과거의 폭력적 성향에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 ② 구장님에게 판단을 받으러 가자는 제안을 장인이 단칼에 거절하며 기선을 제압했기 때문이다.
- ③ 장가를 들지 못하고 빈손으로 고향에 돌아갔을 때 겪게 될 사회적 평판이 두렵기 때문이다.
- ④ 점순이가 장인의 편을 들어 자신을 나무라는 태도를 보일까 봐 미리 조심하기 때문이다.
- ⑤ 사위라는 신분은 머슴과 달리 사경을 청구할 법적 권리가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윗글의 '나'가 점순이의 외모와 행동을 묘사하는 방식에 담긴 함의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점순이의 털 자란 신체를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노동 가치가 폄하되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 ② 점순이의 툭툭한 얼굴과 서글서글한 눈을 통해 그녀가 장인보다 우월한 인격체임을 암시하고 있다.
- ③ 점순이의 실수(깨빠)를 너그럽게 이해하는 모습을 통해 장인과의 갈등에서 도덕적 우위를 점하려 한다.
- ④ 점순이에 대한 성적 매력보다는 생활력과 친근감을 강조하여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려 한다.
- ⑤ 점순이의 외모를 과일(감참외)에 비유하여 그녀가 곧 성숙하여 성례가 임박했음을 독자에게 예고하고 있다.

〈보기〉의 관점에서 윗글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김유정 소설의 특징 중 하나는 '언어의 아이러니'이다. 이는 화자가 처한 객관적 상황과 화자의 주관적 인식이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화자는 자신이 처한 착취 구조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가해자인 인물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이러한 인식의 괴리는 독자로 하여금 화자의 어리석음을 비웃게 하면서도, 동시에 그를 그렇게 만든 사회적 모순을 날카롭게 인식하게 하는 이중적 효과를 거둔다.

- ① '나'가 어저께 싸운 것이 장인님이 미워서가 아니라고 서술하는 것은 가해자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오류를 보여주겠군.
- ② 장인의 아랫배를 불리기 위해 모를 심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결국 논둑에서 일어나는 것은 상황 인지와 행동의 괴리를 드러내겠군.
- ③ 장인이 '나'를 때리고 무색해하는 속마음을 '떡 잘 안다'고 자부하는 '나'의 모습은 화자의 과도한 확신이 주는 희극성을 강조하겠군.
- ④ '나'가 점순이의 키를 키우기 위해 서낭당에 치성을 드리는 행위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엉뚱한 곳에서 찾는 어리석음을 부각하겠군.
- ⑤ 장인이 '나'를 '이자식 저자식' 부르는 것에 분개하는 것은 '나'가 자신을 둘러싼 착취의 본질을 완벽히 꿰뚫어 보고 있음을 의미하겠군.

12

핵심 개념의 정밀 분석 (성례 조건) · 객관식

윗글에서 장인이 내세우는 '점순이의 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와 장인 사이의 계약이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필수적 요건이다.
- ② 노동의 대가인 사경을 대신하여 지급되는 경제적 보상의 가치를 측정하는 객관적 척도이다.
- ③ 전통적인 데릴사위 관습에서 혼인 가능 연령을 판단하는 공동체의 보편적인 기준이다.
- ④ 장인이 노동력 착취를 지속하기 위해 설정한, 검증 불가능하고 자의적인 지연 전술이다.
- ⑤ 점순이가 가사 노동을 수행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실질적 지표이다.

13

핵심 개념의 정밀 분석 (마름의 지위) · 객관식

윗글에 나타난 '마름'이라는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주를 대리하여 소작권을 관리함으로써 농민들의 생존권을 장악하는 실질적 권한을 가진다.
- ② 소작인들로부터 뇌물(닭, 돈, 술)을 수수하거나 노동력을 추가로 징수하는 부당 이득의 원천이 된다.
- ③ 외양적인 위엄보다는 욕설과 폭력 등 강압적인 수단을 통해 피지배층을 통제하는 성격을 띤다.
- ④ 지주와 소작인 사이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마을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직책이다.
- ⑤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도덕적 혐오감과 현실적 굴종이라는 이중적 태도를 갖게 만드는 요인이다.

14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 객관식

밑줄 친 ㉠~㉣의 문맥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기대했던 바와 달리 도무지 상황을 이해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부사이다.
- ② ㉡: 세상 물정에 어둡고 사람의 속임수를 잘 분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비유한다.
- ③ ㉢: 정성을 들이지 않고 겉으로만 시늉을 하며 앓는 모양을 의미한다.
- ④ ㉣: 어떤 일을 하기에 알맞은 때나 기회를 이르는 말이다.
- ⑤ ㉤: 성격이 까다롭지 않고 원만하며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깊음을 나타낸다.

15

구절의 함축적 의미 분석 · 객관식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나'와 장인 사이의 약속이 공식적인 문서가 아닌 구두에 의존한 불완전한 것임을 암시한다.
- ② ㉡: 초자연적인 힘에 의지해서라도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나'의 순진함이 투영되어 있다.
- ③ ㉢: 장인의 탐욕스러운 식탐을 질병에 비유하여 그의 부도덕성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 ④ ㉣: 도덕적 당위나 사리에 맞는 대우를 의미하며, 장인의 무책임한 태도와 대조를 이룬다.
- ⑤ ㉤: 점순이의 덜렁대는 성격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녀와 '나' 사이의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다.